동국사 유물 전시

국립전주박물관은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국사 소장 유물 14점을 공개 전시한다.

전북도유형문화재 제213호 동국사 소장 석가삼존불은 조선 효종 1년(1650) 응매 스님 등 5명의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조선중기 불상이다.

2007년 10월 이 삼존불에서 발굴된 유물은 사리 1과, 후령통 3조, 1586년 김제 흥복사 발간 목판본 <묘법연화경>, 발행년도 미상의 <선문염송>을 비롯한 경전류 49권과 <보협인다라니경>과 '보협진언' 216장, 순치7년(1650년)에 작성된 발원문 2장이고 후령통에서 나온 볍씨, 보리, 녹두 등 곡식류와 금, 은, 진주, 유리, 호박 등 오보(五寶), 한약재, 오향 등 총 333점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불천탑 운주사 관광인프라 구축

'천불천탑(千佛千塔)'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주지 정행)에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운주사 인근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일대 10만5495㎡에 올해부터 2013년까지 공공자금 96억원과 민자 19억원 등 116억원을 들여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관광지로 조성되는 운주사 인근에는 미륵정원, 불교문화관, 생태연못, 습지연못, 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주차장, 산책로, 하수처리장, 휴게 광장 등 공공편익시설 등이 들어선다.

운주사는 2007년 2월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개발구상이 구체화됐다.

정행 스님은 "운주사 일대 정비사업으로 사찰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했다.

한편 운주사에는 도선(道詵) 창건설 등 많은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보물 제796호 9층 석탑과 보물 제797호 석조불감, 보물 제798호 원형다층석탑, 부부 와불(臥佛) 등 많은 불상과 탑이 밀집해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법 의지로 무소뿔처럼 당당히 가라"

조계종 포교사단, 송광사서 제6차 팔재계 수계실천대법회 봉행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업을 참회하오니, 모든 허물 사라져 몸과 마음 건강하고, 위험 원수 사라지고, 선업의 이익 나타나게 하소서."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혜총, 단장 강홍원)은 8월 30~31일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에서 '정기연수 및 제6차 8재계 수계 실천대법회'를 봉행했다.

포교사단은 종단의 포살 · 결계에 앞서 2003년부터 매년 지계(持戒)를 점검하고 전법의지를 다지기 위한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를 개최해왔다.

전국에서 모인 1100여명 포교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회는 입재식에 이어 조계종 포교부장 동범 스님을 강사로 포교사 정기연수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의 '지계실천을 위한 덕목'을 주제로 한 교육과 팔관재계 수계식, 촛불의식, 참회기도와 천수대비주 봉독 철야정진, '관정' 수계교육과 관정의식, 보살계 수계법회, 제13기 신규 포교사 및 제2기 전문포교사 품수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혜총 스님은 "포교사 자신부터 정화돼 밖으로 그 향이 풍겨 나올 때 그것이 참된 포교"라며, "포교사가 매사에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양식 없는 공직자와 일부 종교인들의 행위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숫타니파타>를 인용해 "인욕과 관용을 바탕으로 전법을 수호하는 당당한 의지로 외도들의 흔들림에 걸림없이 무쏘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라"고 포교사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8재계 수계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전계대화상,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이 갈마아사리, 송광사 율주 도현 스님이 교수아사리를 맡아 계를 설했다.

포교사들은 8재계 받은 촛불을 들고 도량을 순회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수호하고 포교에 임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촛불의식을 가졌다.

이날 8재계 실천 수계식과 보살계 수계식에서는 연비의식 없이 다음날 새벽예불 후 관정의식으로 대체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신규포교사 품수식에서는 397명의 새내기 포교사들과 20명의 전문 포교사가 새로 탄생했다.

전법에 공로가 큰 조철주(교정교화분과) 포교사가 총무원장상을, 최종옥(사찰문화안내)포교사가 총재상을, 전순호 · 박태호 · 최영민 · 박용금 포교사가 각각 포교사단장상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8월 30~31일 순천 송광사에서 조계종 포교사단은 제6차 팔재계 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했다.

 # 팔재계란?

1. 생명을 해치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2. 훔치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3. 사음을 하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4. 거짓말 하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5. 술과 마약을 하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6.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7. 향락과 몸 꾸미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8. 높고 넓은 침상에 오르지 않는 계율을 지키겠습니다.

 # 팔관계란? 늘 지켜야하는 오계에서 세 가지 계를 더한 것이다. 팔관계는 하루 밤낮동안 지키는 것으로서 오후에 시작해 다음날 아침 해뜰 때까지 한다. 팔관계를 지키는 동안 경을 보거나 기도, 참선, 봉사 등 수행을 하며 보낸다. 팔관재일은 매월(음력)8일, 14일, 15일, 23일, 월말 이틀을 더해 모두 6일인데 월말의 이틀은 그 달의 크기에 따라 마지막 날과 그 전 날로 정한다. 남방에는 달 크기에 상관없이 5일, 8일, 14일, 23일, 29일, 30일을 지키고 있다. (이 6일을 육재일(六齋日)이라고 한다.)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서 세계 종교문화엑스포를…

박찬수 전남도의원 의회서 주장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전남 영광에서 세계 종교문화엑스포를 열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박찬수 전남도의원은 제235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계종교문화엑스포를 한국불교 최초도래지 영광에서 개최하자"고 말했다. 이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해 세계종교문화엑스포를 개최하면 지역 및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 주장했다.

박찬수 의원은 "세계종교문화엑스포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종교계·학계·지역민 등으로 이뤄진 추진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남 영광은 인도 마라난타 존자가 백제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지역이다. 마라난타 존자가 상륙했던 법성포에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진행중이며, 백제불교 최초 가람 불갑사도 인근이다.

박 의원은 "전남 영광은 원불교 창시자 박중빈 탄생지와 기독교 순교지로도 알려져 세계종교문화엑스포를 개최할 최적의 지역"이라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종교문화엑스포 개최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광 법성포 마라난타 성지 전경.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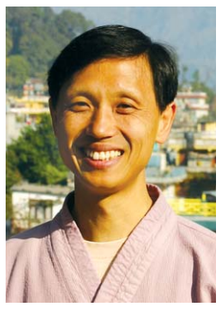
이해모 광주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불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포교'

정부의 종교편향과 촛불시위, 다시 살아난 개발시대와 환경파괴, 경제위기설 등 암울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요즘이다. 누구를 탓하기 보다 미래를 보지 못해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은 인과의 몫이다.

이런 가운데 빛고을 광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불교의 희망아이콘이 있다. 광주불교환경연대 이해모 집행위원장이다.

"불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재양성이다. 종교편향 문제도 결국 불교계가 사회문제에 무관심하고 인재양성에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어린이 · 청소년 · 청년을 비롯해 불자들을 지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해모 집행위원장의 말에는 열정과 노력이 담겼다. 그의 이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해모 집행위원장은 1988년 광주 원각사불일청년회 입회 후 회보나 소식지를 줄곧 만들어 왔다. 이후 대불련 광주지부 편집부장, 선덕사청년회 편집부장, 부산 대각사청년회 편집부장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출판을 업으로 삼았다. 불교출판과 인연을 맺은 것이 벌써 20년째다. 현재 이해모 집행위원장은 불교출판 부다기획 대표다.

이 위원장의 신행 열정은 그의 불교출판 열정 만큼이나 대단하다. 이해모 집행위원장은 1994년 선덕사 수행학교부터 지금까지 단 한 해만 걸렀을 뿐, 매년 광주전남 지역 사찰 어린이캠프를 진행해왔다.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사무국장 역임, (사)불교아카데미 연구위원 등 이 위원장에게는 직함도 많다. 밥이면 전남대 대학원에서 한국현대사 과정까지 공부하는 그의 열정은 대단하다.

"이명박 정부 대운하 백지화를 위해 정진해 왔고, 현재는 종교차별 시정을 위해 교계단체들과 연대사업을 진행중"이라는 이해모 집행위원장은 광주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에서 또 다른 미래 비젼을 준비중이다.

광주불교환경연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활동가들이 지역에 불교 NGO를 설립하고자 2007년 4월 설립됐다. 주요사업은 매월 한차례 진행하는 사찰생태기행, 광주전남 사찰과 연계해 건강한 먹거리와 빈그릇 운동을 위한 환경법회, 어린이들에게 생태적 삶의 가치를 심어주는 어린이생태학교,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쌀나누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대불련 임원활동을 하면서 365일 중 추석과 설날 명절만 빼고 대불련 사무실로 나가 활동했던 때다. 그때의 에너지로 지금껏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열정적으로 활동했다"는 이해모 집행위원장은 2001년 북녘동포를 위해 100일간 매일 저녁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모금했던 일을 가장 인상 깊게 떠올렸다.

"포교는 부처님 법을 바탕으로 지금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더불어 이웃과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가꿔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불자들 오피니언 리더로 키우려 노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